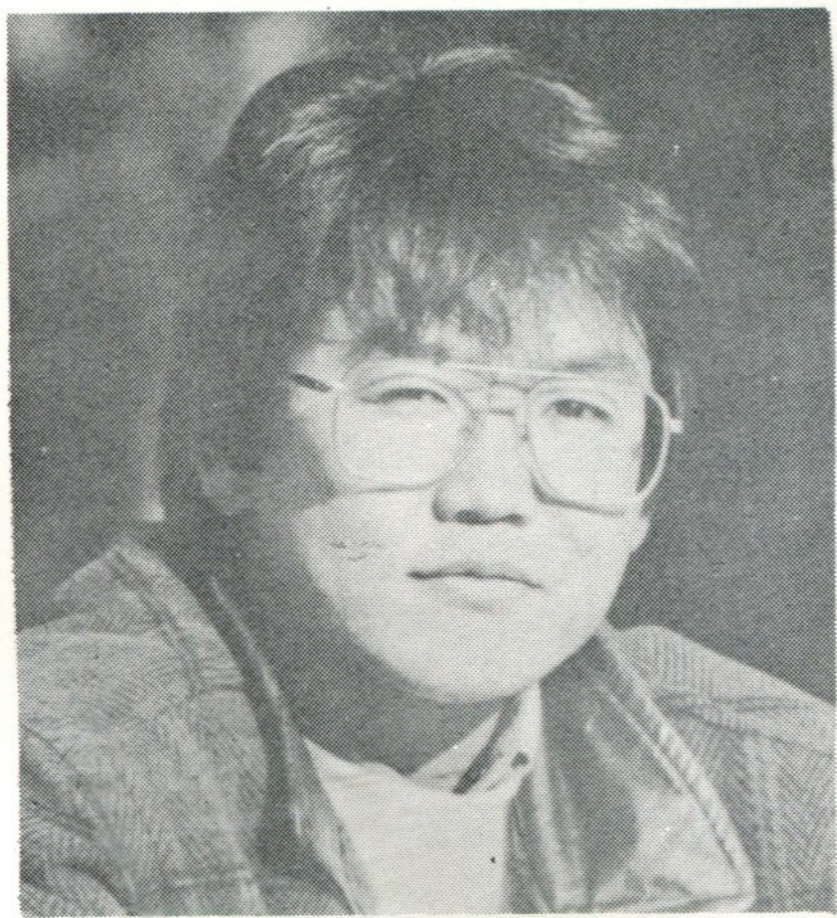


극단 **열린무대** 두번째 창작공연

#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 막 · 예 · 예 · 리 · 며



연출 이 창 복  
극단『열린무대』대표

극장의 사회적 역할이 개혁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오락적 기능의 극장도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항상 극장을 오락기능에 맡겨 둘 수 없게 한다. 극장은 현재적 시점에서 미래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영상매체의 거대자본을 매개로 한 급격한 팽창이 극장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현실을 성찰하며 때론 실의에 빠지고 또한 절망의 그물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회의를 경험한다.

하지만 우리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개혁을 연습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절망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정체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정체를 견딜 수 없기에 새로운 열린 사회를 연습하고 있다. 연극은 행위자만의 미래 연습만이 아니고 더불어 보는 이의 미래 연습이기도 하다. 여기에 극장의 존재가치가 있다. 일상의 현실을 더 나은 미래로 지향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작극 공연을 고집하는 몇몇 극단들의 고집이 가능한 이유는 연극이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열린무대의 창작공연 역시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공연을 고집하는 극단의 가슴앓이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작품 제작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작품 선정에 있어서의 신중성이 열린무대의 가능성이란 믿음과 함께 창작극을 고집하는 몇몇 극단들의 고집이 더이상 필요없는 미래를 연습하며 막을 올린다.

# 작품에 대하여

이창복 · 권남희 공동작

우리에게 있어 과거, 현재, 미래란 무엇이며 역사란 무엇일까. 그리고 담당하고 깨달아야 할 역사적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극단 『열린무대』의 두번째 창작 공연을 위한 준비는 시작되었고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탄생되었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근대사에 있어서 한일관계의 역사적 굴절 아래 상실된 삶을 살아야 했던 김덕이와 분례의 일대기를 중심 축으로 하여 역사의 단면을 조명해 본 작품이다.

1939년 19세의 나이로 징용, 북해도 탄광에서의 탈출, 오오사카 경찰서에 체포, 귀향 그리고 재징용에 이르기까지 짧은 날을 철저히 빼앗긴 경상도 태생 김덕이 할아버지의 일생과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일제에 의해 무참히 생을 빼앗기는 종군 위안부 출신 분례 할머니의 이야기가 중요한 틀이 되며 여기서 김덕이 할아버지와 분례 할머니는 징용과 정신대의 대표적 인물로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봉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봉수는 한국 고아원에서 오끼나와 주둔 미군 병사에게 입양되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양아버지인 미군 병사의 귀국은 봉수를 또 한번의 고아로 만든다.

이 세 사람의 일생은 운명적이라기 보다는 역사가 빚어낸 아픈 상처이다.

피스카토르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종교적 운명, 점성술적인 운명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 바로 위 세 사람의 일생 또한 우연이나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전쟁이란 역사의 틀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란 차원에서 우린 문제의 핵심을 말하고자 했다.

한일 근대사에서 양쪽이 만들어낸 국교정상화 회담, 문화 협력 등은 굴절된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생략되었고 이러한 왜곡과 오류는 세 사람의 일생을 다시 한번 더 역사적으로 지배받게 한다.

작품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이러한 굴절된 역사를 개인의 일생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려 나감으로써 과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바른 현재와 미래를 자리매김 하고자 창작된 것이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머뭇’의 시선 혹은 집착이 이야기하는 감정의 질곡이기 보다는 현재적 위치에서 ‘나아감’의 가치형성쪽으로 노력하는 입장에서 인물들을 설정하고 있었던 역



사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에 제작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말하자면 과거회상적이 아니라 현재진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그려가고자 한 것이다.

1941년부터 5년간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  
에 대한 반성을 위해 많은 문학작품·연극·영화  
가 감동적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6년  
간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 및 반성은 얼마나 작품을 통해 진솔하게 형  
상화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안타깝게 했으며 이것은 작품 구성 동기의 간접  
적 요인이 되어 주었다.

화해의 무드가 형성되는 세계사적 기류를 굳  
이 역류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살  
아가려는 인물들과 대비된 역사적 현상들이 진  
정으로 아픈 자기 반성 없이는 바른 관계의 미  
래가 열리지 않음을 보이면서 새기고 또 새겨서  
극복해야 할 문제를 던지고자 이 이야기를 우리  
는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국가의 선택이 버려버린 아픈 역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  
하며 그 간절함만큼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올린다.

참고로 작품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를 구성  
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김정한 소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2. 이홍섭씨 징용수기 '아버지가 건넌 바다'
3. 권병탁씨 징용수기 '게라마 열도'
4. 이영희 '분단을 넘어서'
5.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 발간 '한일협력의 반성'
6. 한겨레 신문 특집 1월 정신대 발자취 취재기
7. 송건호 外 지음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1989
8. '말' 지 7월호
9. 대한민국정부 발행 '한일회담백서' 1965
10. 월간조선 85년 별책부록 '史料 해방 40년'  
1985
11.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신대에서 허슬러까지'
12. 부산일보 90년 8월 '일제가 남긴 한' 시리즈



## 기록극 (Dokumentar- Stück)이란

기록극이란 신빙성 있는 연설문, 논설, 신문기사, 정치적 호소문, 사진, 저명 인사의 성명서, 전쟁영화, 역사적 광경 등을 몽타쥬 Montage 기법으로 엮어 무대위에 올려놓는 드라마를 말한다.

자료를 읽고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자료의 취사 선택 능력이며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비판정신을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극 작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역사를 보는 안목과 함께, 발췌한 자료를 극적 형식 안에서 재구성해 내는 능력이다.

대체로 기록극은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여러가지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형태로 등장하여 삶을 반성하고 재정의해 내는 힘을 주고 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1960년대의 주요 독일 작가인 바이스가 규정 한 기록극의 중요 성질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기록극의 성공 여부는 비판적인 자료 선정과 그 선정한 자료를 어떤 원칙에서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2. 기록극은 대중매체의 은폐, 왜곡, 허위에 대한 비판을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이 어느 집단의 이해 관계에서 조종당하고 있지 않은가. 보도되어야 할 자료가 보도되지 않고 있거나 없는가. 어떤 사회적 현상이 호도되고 수식되며 이상화될 때 특정 집단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없는가. 역사적인 사실을 인멸함으로써 누구의 지위가 강화되는가. 진실을 추구할 때 맞싸워야 할 어려움은 무엇인가? 진리를 밝혀 내는 것을 방해하는 기관과 조직은 무엇인가 등

**기록극은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여러가지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형태로 등장하여 삶을 반성하고 재정의해 내는 힘을 주고 퇴장할 수 있도록**

등 위에 열거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의 내용들이 결국 기록극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하겠다.

3. 기록극은 뇌물 수수, 강요 등의 관계를 서술하고 그러한 관계가 상호의존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익을 얻는 자가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려 하며 바로 그들이 질서 유지자로 등장함에 주목해야 한다.

4. 기록극은 형식면에서 다음 예처럼 처리된다; 보도가 시간상으로 정확히 리듬을 맞추어 정리된다. 인용이 있는 다음에는 상황이 따른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 반대상황이 전개 되고 한 구변자가 다수의 구변자와 대치해 있다. 상황이 급격히 단순화되고 리포트, 요약문이 노래 형식으로 나타난다. 악기 반주, 소음 효과, 코러스, 무언극이 첨부된다.

이러한 기록극이 가지고 있는 강한 현실성을 어떻게 예술적 장치 속에 담아 극적 재미로 전달해야 하는가는 작가 및 연출가에게 주어진 연극미의식에 대한 사명이기도 하다.



경남 陝川 출신으로 마츠시로 대본영에 강제징용됐던 崔小岩씨.

# 징용

## 8천명 징용 허가 속 하루 12시간 일 발파·붕괴사고 영양실조에 매일 참변

제2차대전 말기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본토 결전을 앞두고 한국인 약 8천명을 징용으로 끌고가지 하호를 파서 구축한 마츠시로(松代) 대본영, 전시에 일본 천황 직속하에 두었던 최고통수기관이다.

굴 앞에는 학교 건물같은 단층 건물이 서 있고 그 뒤편 산 밑에 유령이 나올듯한 어두운 굴이 입을 벌리고 있다. 굴 속에는 천황이 은거하면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넓직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수용인원 1천명 규모의 거대한 굴이다.

이 대본영 지하호를 판 것은 1944년 일본이 패전한 바로 1년전부터 서둘렀다. 전쟁광의 마지막 발버둥으로 무고하게 난공사를 벌였다.

경남 陝川출신으로서 이곳에 징용으로 끌려와 혹사당한 崔小岩씨(68. 일본명 崔本小岩)는 아직도 마츠시로에 살고 있으면서 당시의 생생한 참상을 증언했다. 한국전역에서 징용된 노무자는 8천여명으로 모두 20세전후의 젊은이들이었다.

1944년의 겨울은 60년대의 혹한이었다. 판자집은 얼어붙은 돼지우리 같았다. 이불은 광목천에 짚을 넣었는데 헤어져서 누더기. 샘을 파서 식수로 한 물은 흙탕물이었고 식량은 쌀한톨 없이 옥수수과 콩기름을 짠 찌꺼기의 대두박이었으며 소금물이 반찬이었다.

새벽 5시부터 12시간의 중노동이었다. 처음에는 3교대노동이었으나 戰勢가 다급해지자 2교대였는데 병들고 부상을 당해도 치료마저 할 수 없었다.

굴착공사는 밤낮없이 계속되었다. 미군의 일본본토 폭격이 날로 심해지자 일본군부 감독관의 한국 노무자들에 대한 채찍질이 더욱 심해졌다.

다이너마이트 발파때 날아온 돌덩이에 맞아 무수히 죽었고 갱도가 무너져 집단 압살되기도 했다.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매일 10여명씩 죽어갔다. 시체는 큰구덩이에 던져졌다.

노무자들이 집단항의라도 할까봐 서로 접촉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공포분위기 속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다. 불평하면 린치를 자행했다. 길다란 철봉을 다리사이에 끼워 비틀면 뼈부러지는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 이런 광경을 전노무자들을 집합시켜 지켜보게 했다. 불평하거나 탈출하면 이같은 린치를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병들어 쓰러지면 1

주일이나 10일쯤 굶졌다. 죽을때까지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다.

崔씨는 『니시마츠구미(西松組)에서 일했다. 한국인 징용 노동자 3천5백여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토사가 무너지고 다이너마이트 폭파때 바위덩이 밑에 깔려 죽는 등 노무자명단에 기록된 사망자만 해도 약 6백명, 다른 공사장에서의 희생자를 합치면 1천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증명했다.

지하호에 들어서면 냉기가 엄습하고 노무자들의 원혼이 절규하듯 암울한 메아리가 울린다. 호속에는 현재도 손가락뼈 두골과편 이빨등의 사망자 人骨이 곳곳에 흩어져있다. 굴 바닥의 흙과 돌은 아직도 검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시체를 방치한 자리라고 한다.

호속 깊숙히 들어가자 돌벽에 한줄 낙서가 으스스푸레 나타난다.

「너이들도, 군대도, 호도 모두 끝난다.」 그리고 「1945 河本」(河씨인듯)이라고 쓰여있는데 낙서한 사람의 姓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마츠시로에 거주하는 이이타 요시에(82. 飯田善江) 할머니는 『굴속에서 작업하던 한국인 노무자들이 부상당해 매일 수십명씩 들것에 실려 나왔지요. 한국인 부인들이 더러 식당에서 밥을 지어 주었는데 옥수수와 대두박 만으로 밥을 지을수 없어 허공을 향해 탄식하며 통곡하는 광경을 보기도 했지요. 終戰後 일본군부 요원인 감독관의 숙소를 개방했더니 쌀부대, 설탕, 쇠고기, 달걀등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요. 일본군인들은 배불리 먹고 노무자들은 굶어 죽게 했던 것을 생각하니 일본군인이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알만하지요』라며 생죽음 당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孤魂을 빌듯 합장했다.

하라야마씨는 『한국인 징용자들의 참상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反戰 평화교육장으로 활용 개발할 계획을 추진중인데 지하호의 전모를 알 수가 없지요. 아직도 일본정부가 은폐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로 回歸하지 못하도록 하는 살아 있는 증거물로 보존하여 만민들에게 고발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정 신 대

## 군대동원 처녀사냥 예사 히로뽕·주먹밥 먹여 '위안' 강요



식당 '대중다실' 앞에 선  
유유타 할머니와 남편 찬차오

1943년 5월, 이 무렵 조선 사람들은 일본군에 끌려가면 그들의 '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요시다의 징용대는 맨처음 갓을 만드는 집을 습격해서 20~30명의 여자 중에서 8명을 끌어냈다.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자 건강한 조선남자 4~5명이 길을 막았다. 칼을 쫓은 총으로 막아도 남자들은 손을 쳐들고 조선말로 필사적으로 항의해 왔다. 대원들이 총검을 들이댔을 때 그들은 도망쳤다. "아이고! 아이고!"하며 울부짖는 여성들을 트럭에 밀어넣었다. 트럭이 숲속으로 들어갔다. 요시다는 징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원들이 방금 사냥한 여성들과 '놀게' 했다.

정신대로 끌려가던 여성들이 만주로 가는 도중 기차에서 뛰어내려 죽고, 태평양의 섬으로 가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성들의 발을 쇠사슬로 묶었다고 한다.

해군에는 16살부터의 어린 소년 돌격대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털털이 엔진에, 돌아올 수 없도록 기름을 조금밖에 넣지 않은 비행기로 폭격나갈 운명이었다. 소년들은 출격전날이면 위안소에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럴 때면 내일이면 죽는다는 것을 안다. 오키나와에서는 같은 또래의 간부후보생들이 폭탄을 싣고 미국 해군함정을 향해 돌진해야 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소년들과 위안부들에게 일본군은 히로뽕을 먹였다. 일본 소년들에게는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한국 여성들에게는 수치심을 없애고 불가능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다.

김일면씨의 책에 의하면 라바울에서의 한국위안부는 하루 90명을 겪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관리부 군인이 칸막이 사이로 주먹밥을 넣어주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싸움터가 넓어지는 만큼 수요가 늘어 위안부를 트럭에 싣고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군인을 찾아 다녔다고 한다. 먹을 시간도 잘 시간도 없어 다음 장소로 가는 트럭속에서 던져주는 주먹밥을 먹고 잠을 잤다고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중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말한 사람은 오키나와 나하의 배봉기 할머니와 타이 핫차이에 있는 유유타(70) 할머니 뿐이다. 유유타 할머니는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 이름을 쓰고 있다.

유유타 할머니는 줄담배를 피웠다. 남편과 더불어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하는듯 보였으나 결벽증이 있는듯 어디를 가나 담배와 유난히 희고 큰 손수건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겼다. 할머니가 마음을 열어 놓은 듯 싶어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놀러갑시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끊었다. 필자를 유유타 할머니에게 소개해 준 마쓰이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군인들의 빨래를 하고, 막사를 청소하고, 탄약을 날라야 했고, 또 밤이면 군인부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다 한다. 바로 인간이하의 삶이 거기 있었다.

필자가 이들 동안 본 할머니는 강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마쓰이에게 "흙탕물에서 자라 이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연화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연화각은 할머니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절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할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부인을 맞도록 하여 지금까지 한지붕 밑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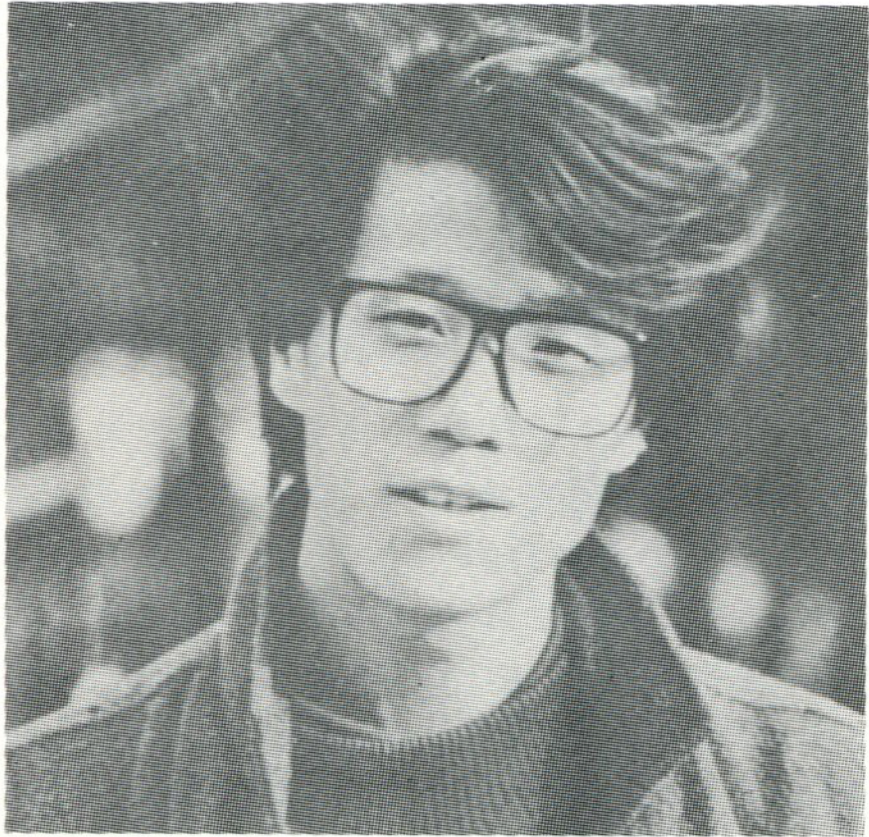
이렇게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사는 유유타 할머니를 보면서 한편으론 오키나와에서 인간 기괴증에 걸려 폐쇄적으로 살고 있는 배봉기 할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키나와를 떠나야 하는 1988년 2월 하순 어느 일요일 아침 필자는 일행과 같이 허탕칠 셈치고 배봉기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다.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배봉기 할머니였다. 우리 자신을 소개하며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는 귀찮다고 가라고 손짓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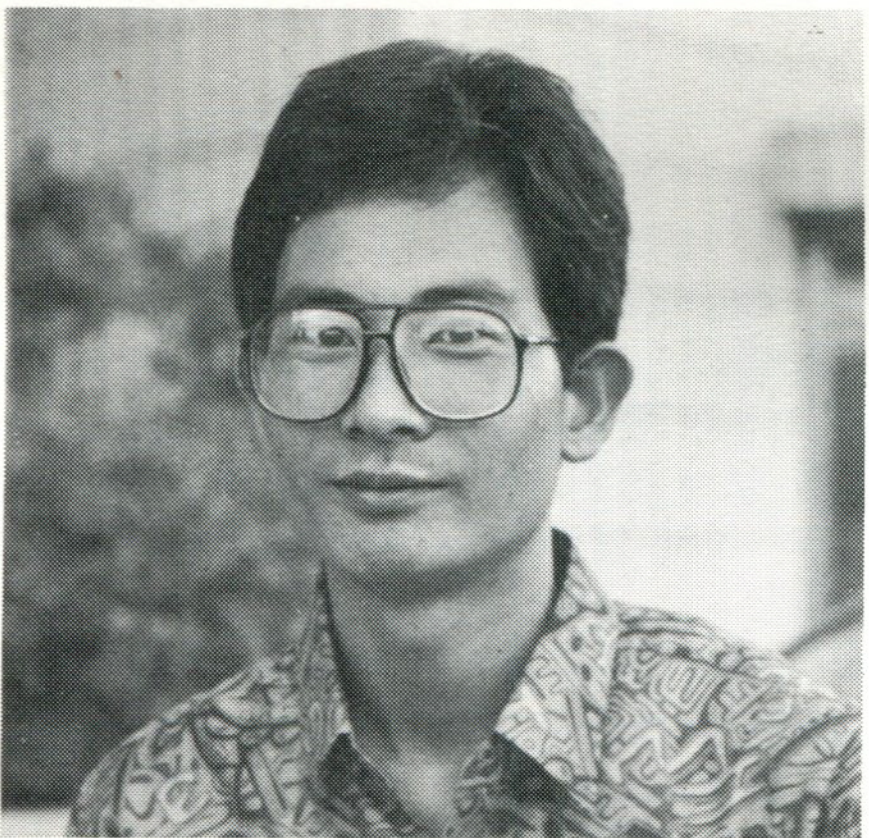
가와다의 책을 보면 할머니는 포로수용소에서 나와 한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오키나와를 한없이 헤맸다고 한다. 그뒤 나하에 자리를 잡자 그의 지옥같은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오는 사람마다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캐묻곤 하니 배봉기 할머니가 심신이 병든 것도, 우리를 그토록 피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들어도 그들이 겪은 고통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는지 모른다.

# CAST



한중환



신명식



박동섭

## 나를 무대에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그 기억이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제 내게 무대는 낯설지 않은 장소가 되었다. 시작할 때 모든이가 그러하듯 나 또한 깊은 애정과 정열로 연기를 시작하였다.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듯 신비롭고 흥분되는 마음은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인내와 독서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전공이 바뀐 착각속에서 그 시기를 지냈다. 그 후 사치 생활을 시작할 때쯤 뜨겁던 열정은 또 다시 연극 무대로 발을 들여놓게 만들었다. 군인이 단 한번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은 엄청나다. 한 배우가 역을 창조하여 공연하는 과정 또한 그러하리라.

첫 막이 오르기 전 몸은 긴장을 시작한다. 이제



#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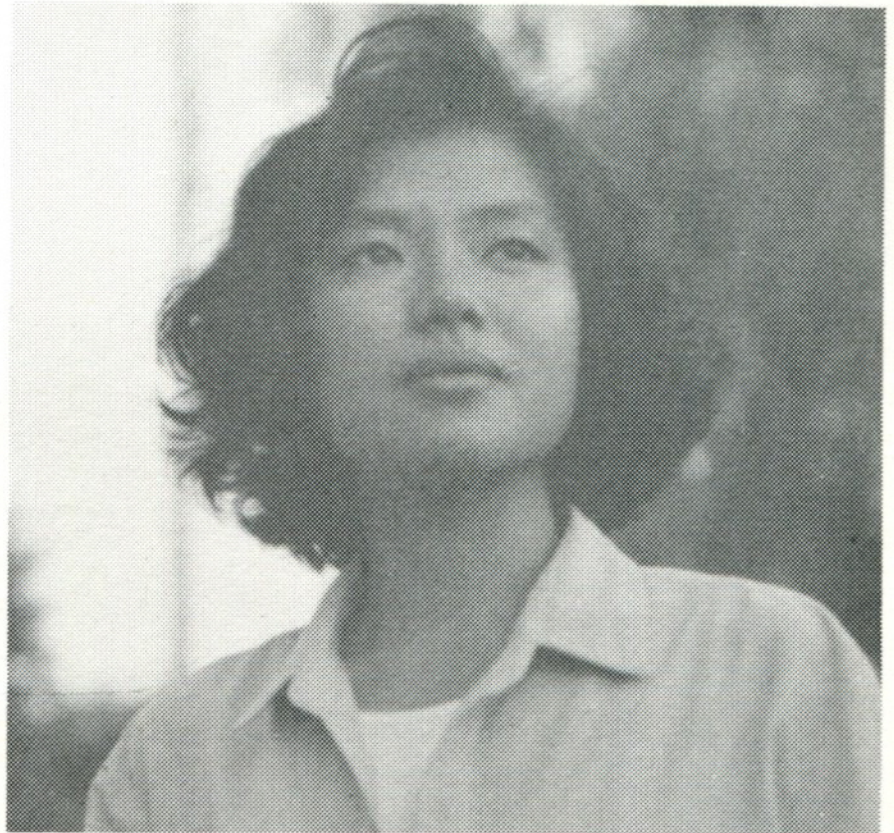
## 서게 하는 것은

한 종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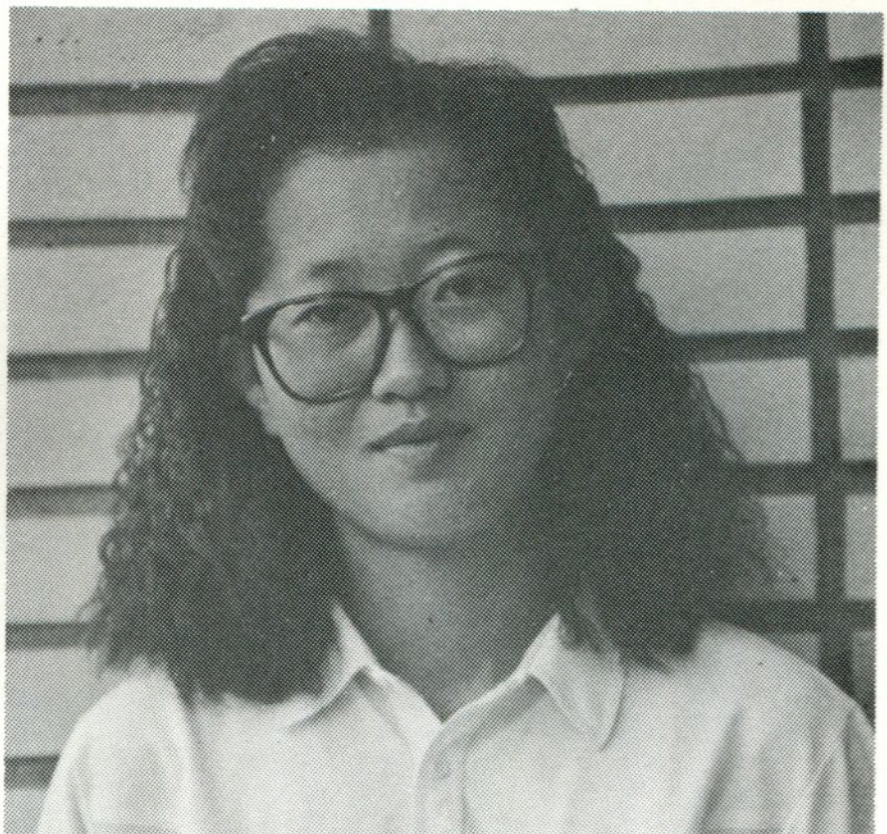
막 탄생하려는 아이의 준비와도 같이 우리의 무대는 아직 어둠속에서 그 텅빈 공간속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 침묵과 또 다른 한 인간의 언어를 내뿜기 위하여 서성이는 눈빛들. 그러나 곧 불은 켜지고 연극은 시작된다. 큰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긴 세월을 기다려 온 한 인생이, 어느덧 몸에 배어버린 그가 삶을 시작한다.

어릴 적 희미한 기억으로 정서를 삼고 무대위의 또다른 배우를 믿음으로 감정을 키워 속에 꿈틀거리는 할 수 없음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로울 때 비로소 한 인간으로 탈바꿈된 나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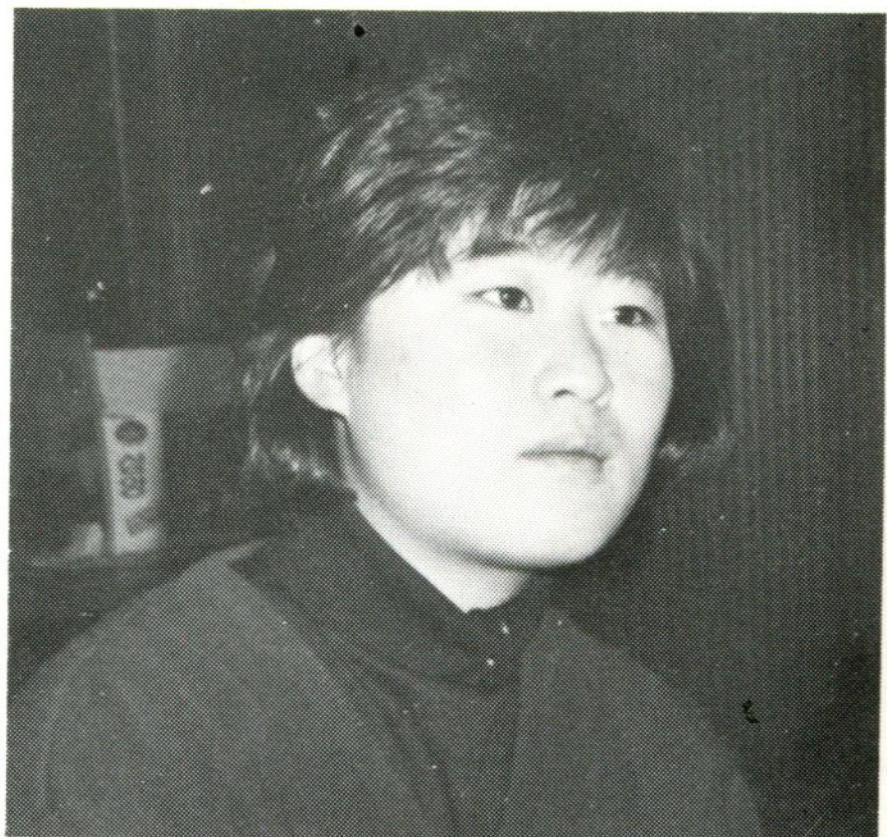
빛나는 조명과 공허한 공간의 넓음이 오늘 무대에 나를 서게 하는 것들이다.



박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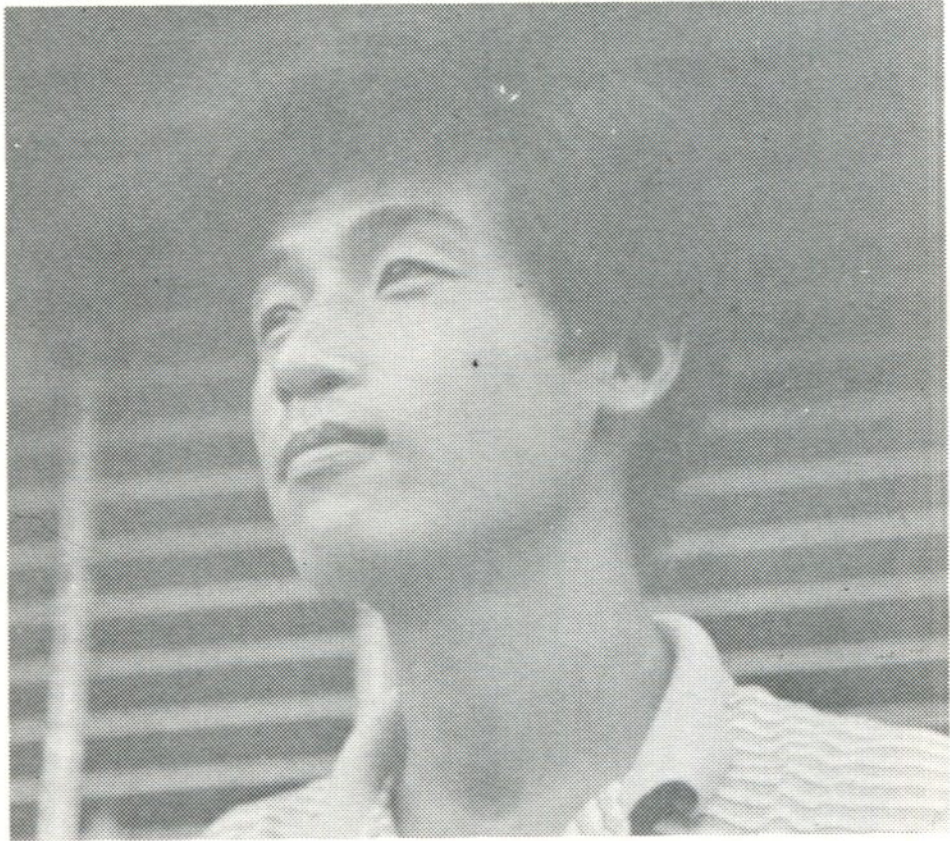
이남희



백주은



#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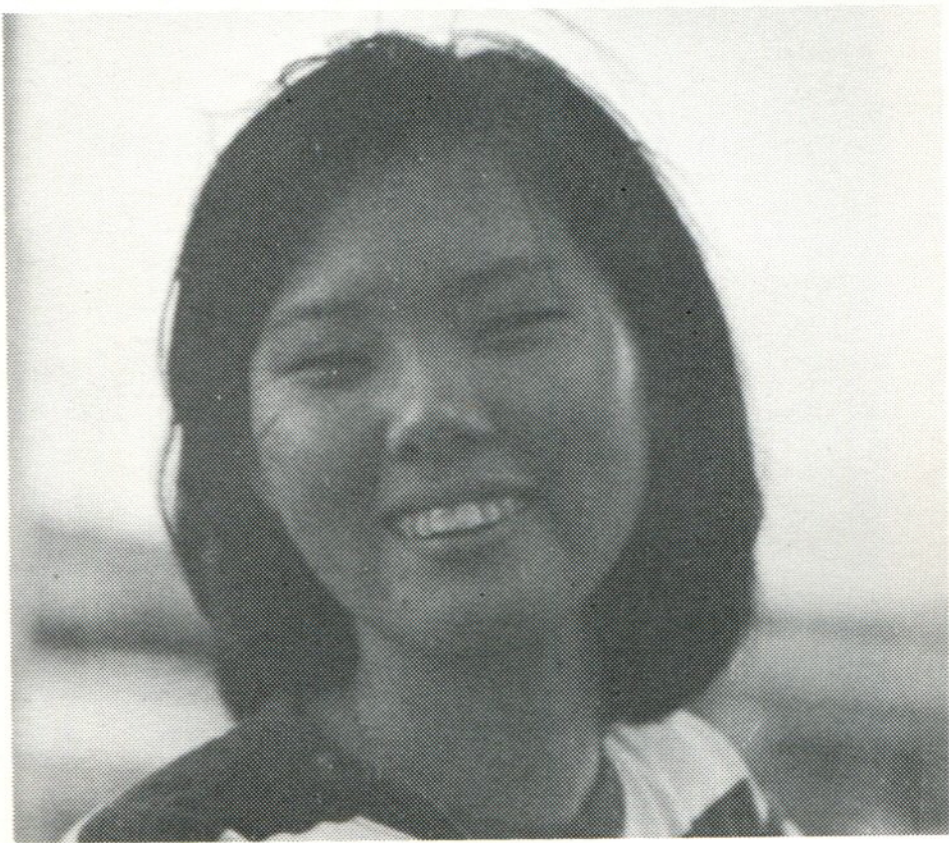
무감

이 호



음향

김지혜



조명

김은아



의상

서복련

